

유은학원 서구동문회, 동성고 야구부에 성금 전달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광주 서구동문회가 지난 21일 광주동성고를 방문, 선영구(광주상고 29회) 교장과 김재덕(38회) 야구부 감독에게 돼지고기 70kg과 성금, 음료수 등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모교 방문에는 서구동문회 이재기(32회) 회장·이상규(37회) 사무국장·박영미(광주여상 20회) 재무국장과 유은학원총동문회 박민규(38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비로 돼지고기를 마련한 이재기 회장은 "양현중·김도영, 김원중 등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한 모교 야구부의 2025시즌 필승을 기원하며 올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대한건설전문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건설전문협회 광주시회(회장 박병철)는 21일 위더스 광주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윤학수 중앙회장을 비롯해 협회 고문, 대표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병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와 생산체계 개선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우리 업계가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업역 확대, 수주물량 증대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김동수(사진) 원장이 22일 25년간 꾸준한 정기후원과 기부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김 원장은 지난 25년간 일일금액을 적십자에 후원했고, 2023년 출간한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첫 인세는 헌혈자 예우를 위한 재능봉사 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총 1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김 원장은 "일시적으로 크게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매달 조금씩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기부가 어렵다면 생명의나눔 헌혈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명화 광주대 산학협력단 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산학협력단 광명화(사진) 선임이 광주·전남지역의 산학연R&D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광 선임은 2008년부터 16년간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에 근무하며 산학연 Collabo R&D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산학협력 사업을 지원해 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농협광주본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320만원 기탁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21일 농협광주본부 3층 회의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 232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장재영)와 광주 관내 전 지역농협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사고 피해 유가족들의 심리 치유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광주본부 관계자는 "피해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누며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유 기자 dok2000@kwangju.co.kr

GA코리아 플러스지사, 성금 1000만원 전달



GA코리아 플러스지사가 2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사진> 이번 성금은 GA코리아 플러스지사 최석호 대표와 광주·목포·순천지점 직원 일동이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GA코리아 플러스지사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성금 기부에도 참여했다. 최대표는 지난 2013년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1호로 가입해 광주사랑의열매에 누적 1억 28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2014년에는 GA코리아의 여러 지점들과 함께 '착한 일터'에 가입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MBC 뉴스특보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신데렐라 게임(재)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10 사랑의 가족(재)	10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재)	15 건강의 재구성 섹터(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모델 캘리포니아(재)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김현희의 원더랜드(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신데렐라 게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열린채널			
3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내 비밀친구 뽀빠(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풀리레스큐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다큐 스페셜 <솔로하우스>	05 위시켓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신데렐라 게임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15 토크콘서트 화통 스페셜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공야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크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개그 콘서트 스페셜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테마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조성호 클라리넷 리사이틀>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상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50 PD로그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이렇게 떠나볼까? 캄보디아 - 맛있는 초대>
07:3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우리는 아날로그로 간다 4부 1400°C 정성의 맛>
07:45 하프와 친구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55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08:00 당동맹 유치원	15:55 블록S	22:45 다큐멘터리K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맹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50 도래미 프렌즈	16:30 페파 피그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05 꿈과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붐	16:55 하프와 친구들(재)	
09:40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0:30 한국기행(재)	17:40 레인보우 버블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3일(음 12월 24일 壬辰) ☎ 010-9790-8237

<p>36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48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60년생 견인 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72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84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썩트리라. 96년생 본능적이라면 위험해지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9, 61</p>	<p>42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54년생 일정한 기준과 체계에서 처리하라. 66년생 기쁜 일을 맞이함으로 인해 신명 날 것이다. 78년생 대세를 관망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유익하다. 90년생 명분에 이끌리다 보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02년생 여건이 불리하니 장고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2, 93</p>
<p>37년생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49년생 금근의 위력 앞에서 휘청거리지는 형편이다. 61년생 숨어 있는 의 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73년생 실행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85년생 돌발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97년생 유난히 마음을 끄는 바가 있을 것이니 꼭 지켜보라. 행운의 숫자 : 23, 58</p>	<p>43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55년생 핵심 사항을 간과한다면 실기가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67년생 차분히 살펴보고 천천히 판단해도 되느니라. 79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91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03년생 잘 살펴보아야 하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08, 68</p>
<p>38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된다. 50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62년생 중추시키기에 너무도 미약한 진로에 놓여 있다. 74년생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86년생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98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행운의 숫자 : 30, 75</p>	<p>44년생 상대의 깊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56년생 안배를 잘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68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일정한 결과를 보인다. 80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92년생 신규는 절대 불과하니 품도 꺾어서는 아니 되겠다. 04년생 체면 때문에 내버려두면 불상사가 생길 것이니 적극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45, 67</p>
<p>39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51년생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라. 63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먼저 처리함이 맞다. 75년생 역량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해야만 한다. 87년생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다. 99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장래가 밝아 온다. 행운의 숫자 : 03, 99</p>	<p>45년생 방법과 내용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57년생 실제적인 내용이 충실해야 빛을 보게 된다. 69년생 유익이 충만해지고 용기가 분출하는 계기가 된다. 81년생 망각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것 같으니라. 93년생 관세가 이처럼 흘러가게 된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느니라. 05년생 적극적으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6, 80</p>
<p>40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고 언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년생 선후를 가려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 64년생 순탄하지 않다면 내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76년생 편향을 버리고 중용으로써 삼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88년생 풍성한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00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02, 57</p>	<p>46년생 명분에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58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하겠다. 70년생 인식하였다면 즉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82년생 전례대로만 행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94년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06년생 활로를 개척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니 기탄없이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19, 87</p>
<p>41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53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65년생 뒷발이 남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77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서 있으니 판단을 잘 해야겠다. 89년생 어려움을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01년생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7, 97</p>	<p>47년생 표리부동하니 전후의 사정과 면모를 잘 살펴라. 59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다 보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71년생 어떠한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주관을 가져라. 83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95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익이다. 07년생 필연적이었던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48, 52</p>